

따뜻한 휴식의 시간... 수채화 힐링전

내일부터 '이숙희 개인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내일부터 15일까지 '이숙희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며, 한국 미협전, 한·중·일 교류전, 말레이시아 IWS 국제 수채화 초대전 등의 국내외 교류전, 초대전과 다수의 그룹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경인미술대전 운영위원, 한국수채화 아카데미 심사위원, 행주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7 미술대전 특선, 2013 대한민국 수채화 공모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한국미협 회원, 한국 수채화 협회 지역 이사,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 협회 회원, 예술단체 회장, 경인미술대전 운영위원, 경인수채화협회 부회장, 부천미협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서 출현한 것이지만 작사를 동반하면서 그만큼 환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뜯어내기'는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칼 작업이고 그리기와는 다른 차원의 조각적 작업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흰색의 꽃잎으로 보이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면 스스로 그림이 된다. 작선과 곡선, 채움과 비움, 가벼움과 무거움, 투명함과 불투명함, 번지기에 두툼한 물질감 등 이원적이고 상극적인 요소 간의 대조를 통해 화면을 긴장감 있게, 다채로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동시에 한 화면 안에서 구상적이고 추상적인 형태가 서로 얽혀있고 평면적이고 입체적인 효과도 공존하고 있다. 작가는 기존 수채화 작업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관습적인 소재, 방법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의 실험, 색다른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제목에 초점을 두고 작가에게 소중한 이들과 관객들에게 따뜻한 휴식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관객들이 이번 전시를 관람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심표를 찍고 잠시라도 여유롭게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김진성 기자

현대인들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한마디로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과도한 경쟁과 수많은 업무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까지 발생하는 요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추다'라는 소



전북대학교 박물관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청소년에 창의적 학습기회 제공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이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2013년 이 사업에 선정돼 통찰의 힘을 기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해 스토리텔링과 체험 등을 결합한 인문교육 확산에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매년 1,300명 이상의 지역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전주 출판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옛 책, 우리 문화를 품다' 프로그

램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능을 체험케 하는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 등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에 박물관은 오는 10일 전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5개 학급, 1,4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한편 박물관 기록문화실과 연계한 '옛 책 만들기'에서는 고문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보고, 나만의 옛 책을 만들어 인문 지평을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선비들의 가치관과 삶을 이해할 수 있

는 사군자 병풍 만들기, 친구 초상화 그리기 체험, 그리고 큐레이터 전시기획 체험 등을 통해 인문 교육의 창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조대연 박물관장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강의와 문화체험을 통해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탐구와 체험, 감성 활동의 균형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높이고, 주도적 인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창의 체험 교육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춘향제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 세종대로 도심보행 전용거리에서 춘향제와 관광남원을 적극 홍보하며 수도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월 봄소풍은 남원으로 가요~

남원 춘향제전위원회, 수도권에서 춘향제 홍보 나서

남원 춘향제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대로 도심보행 전용거리에서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관한무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예술축제인 '제89회 춘향제'와 '관광남원'을 적극 홍보하며 수도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홍보에는 역대 춘향과 남원시 홍보대사인 연예인, 신관사포부임행차 공연단과 함께 출동해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선보이며 제89회 춘향제와 관광남원을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12년 연속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으로 선정된 남원 신관사포부임행차단의 마당극 춘향전과 세종대로 거리퍼레이드 및 각종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 남원의 매력을 한껏 알리는 시간이 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역대 춘향들은 다양한 관광객과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토 존을 운영하는 등 춘향제 홍보에 열정을 보였으며, 남원의 대표 전통행사인 신관사포부임행차 팀은 거리 퍼포먼스를 펼쳐며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홍보에 최선을 다 했다. 한편 이번 홍보행사에는 제88회 미스춘향 진 김진아 씨를 비롯해 남원시 홍보대사 김범준(개그맨)씨, 조래훈(개그맨)씨 등이 함께하며 우리나라 대표지역 축제인 춘향제의 위상을 알리기에 적극 동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영화에 못 담은 말들... '노무현과 바보들' 책으로 나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이 18일 개봉에 앞서 책으로 나왔다.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은 노무현(1946년 9월1일~2009년 5월23일)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는 '바보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이야기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그를 기억하는 80여명의 인터뷰이들의 기억으로 완성됐다. '노무현과 바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능, 돈, 시간을 들여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자 했는지 보여준다. 제작진은 인터뷰 내용 중 영화에 다 담지 못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책에 실었다. 제작진은 "자녀들에게 현재와 같은 야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없다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모인 이들의 이야기를, 한 시절을 새끼뿔처럼 불태웠던 열정과 회한의 기억을 러닝 타임 93분의 영화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책은 '영화에서 못 담은 말들'이라는 콘셉트로 2만5000개가 넘는 인터뷰 녹취원고를 두 권으로 줄였다. 1부 낙선-2부 당선(이상 1권), 3부 탄핵-4부 퇴임(이상 2권)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기획 손현욱, 역은이 (주)바보들, 792쪽, 3만8000원, 심상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